

# 증강현실서 춤추고... 가상현실서 등반하고...



대한체육회와 강원 속초시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감형 스포츠체험관 '스포츠 넥스트 레벨'을 개관했다. 사진은 이용객들이 증강현실(VR) 등을 이용해 스케이트 보드와 브레이크, 클라이밍 등의 다양한 생활스포츠를 체험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25일 강원 속초 석산생활체육관 1층 한편에서 한 남성이 화면 속 전문댄서를 따라 브레이크 댄스의 부분 동작을 따라 했다. 그의 모습이 화면 속 댄서 옆에 함께 나타나 마치 합동 안무를 보는 듯했다. 분절 동작을 마무리한 체험자가 리듬에 맞춰 연결동작을 수행하자 전면에 위치한 센서가 그의 움직임을 인식한 뒤 안무의 정확도를 토대로 채점을 진행했다. 초급 단계 브레이크 댄스를 익힌 체험자는 중급, 고급 단계 순으로 난도를 높여가며 다양한 안무를 숙달했다.

### 레벨업 스포츠

### (1) 생활체육도 넥스트 레벨... 이제는 ICT다

지금쯤 디지털 혁명 시대다. 국민 건강에 중요한 생활스포츠도 언제까지 날씨와 환경에 제약을 받으며 할 수만은 없기에 디지털 변환이 시작됐다. 한정된 공간에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생소한 종목일지라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실감형 스포츠가 핵심이다. 디지털로 레벨업을 이룬 생활스포츠, 그 현장을 다녀왔다.

이들이 춤을 추며 땀을 흘린 곳은 대한체육회와 속초시가 조성한 실감형 스포츠체험관 '스포츠 넥스트 레벨'이다. 체육회와 속초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산생활체육관 1층 600㎡ 공간에 체험관을 마련했다. 체육회

는 콘텐츠 개발, 시설조성 및 운영비 70억 원을 투입했고, 속초시는 장소, 기반시설, 인근 관광과의 연계 등을 지원했다. 이날 개관식을 가진 스포츠 넥스트 레벨은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이용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용객들은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 하계 올림픽 정식종목인 브레이크, 스포츠킴라이밍, 스케이트보드 3개 종

목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체험방법은 다양하다. 튜토리얼을 통해 해당 종목의 역사, 대회 규정, 심사기준 등을 학습한 뒤 기초기술을 단계별로 습득할 수도 있고, 가상현실(VR) 기기 등을 착용한 채 곧바로 실전체험에 나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체험자들은 튜토리얼을 숙지한 뒤 증강현실(AR) 브레이크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급 단

속초에 스포츠 넥스트 레벨 개관 내달부터 일반 이용객 무료 체험 브레이크·클라이밍·스케이트보드 VR 기기 등 통해 실전체험 가능 고비용·계절형 스포츠 한계 극복 스포츠·첨단기술 융합 방안도 모색 "코로나타트 침체된 생활체육 활성화"

계별 10곡씩 총 30개 안무세트를 학습할 수 있다. 보다 자유롭게 춤을 추고 싶은 이들은 실전 브레이크에도 도전하면 된다. 키오스크에 등록된 음악 30곡 중 한 곡과 6종(경기장, 우주, 오로라, 아트홀릭, 뉴욕거리, 겨울숲)의 영상배경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크로마키(녹색스크린) 방에 입장해 춤을 추는 방식이다. 체험자들의 댄스는 '360도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뒤 기존에 선택한 음악과

배경이 적용돼 영상으로 저장된다. '이머시브 볼더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라이밍의 세부종목 중 하나인 볼더링을 체험하며 암벽등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체험자들은 1인(상급자)·2인(대결형)·4인(개별 체험)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해 전체 길이 12m·높이 4m의 벽면(3m 길이 4개 벽면)을 오가며 '루트 파인딩' 문제 등을 해결한 뒤 점수를 받는다. 클라이밍존에는 이외에도 VR 장비를 착용하고 에베레스트에 등반에 나설 수 있다. 스케이트보드 존에서는 30m 길이의 레일 위에서 기초 주행기술을 습득하거나 VR장비를 착용한 채 시뮬레이터에 올라 가상의 스케이트보드 파크에서 진행되는 보딩 기술을 경험한다. 대기자들은 휴게공간에서 각종 게임을 즐기며 실시간으로 체험점수와 랭킹을 확인할 수 있다. 체육회와 속초시는 스포츠 넥스트

레벨을 통해 유소년, 청장년층의 신체 활동이 늘어나고, 고비용·계절형 스포츠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 참여한 윤성욱 체육회 사무총장은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스포츠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발달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며 "이번 체험관이 올림픽 신설 종목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처음에는 체험관에 접목된 ICT가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속초시가 관광과 스포츠를 접목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속초=박주희기자

## 어게인 2015는 무패·다득점 뿐... 10대 해결사를 활용하라

'Again(어게인) 2015'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네 번째 출전한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위한 해결책은 이젠 무패와 다득점뿐이다. 무조건 조별리그 H조 2차전 상대인 모로코를 격파해야 승산이 있다. 8년 전 기록을 이룬다면 확실한 해결사도 필요하다. 폴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은 30일 오후 1시 30분(한국시간) 호주 애들레이드의 쿠파스 스타디움에서 모로코와 16강 진출을 위한 한판 대결을 펼친다. 독일이 0-6으로 대패한 모로코는 이 대회 '한 경기 최다 실점'의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덩벌 것으로 보인다.

양발 기술 탁월한 16세 유진 페어 콜롬비아전서 후반 투입 '인상적' 벨 감독 "한국의 미래" 활용할 듯



한국은 현재 H조 3위(승점 0·골 득실 -2)다. 지난 25일 조별리그 H조 첫 경기인 콜롬비아전에서 초반 중원 싸움에 밀리지 않고 탄탄한 수비로 윌딩한 기량을 뽐냈다. 그러나 수비의 핸드볼 반

칙 실수로 페널티킥 골을 내주면서 급격히 기세가 꺾였고, 골키퍼의 실수로 내준 골은 더욱 뼈아팠다. 만회할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만의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무너진 게 아쉬웠다. 그러나 한국은 고비를 잘 넘긴 경험이었다. 2015년 캐나다 월드컵 당시 한국은 '우승 후보' 브라질과 '강호' 스페인, 그리고 코스타리카와 E조로 묶였다. 1차전은 브라질에 0-2로 패했다. 사활을 건 2차전인 코스타리카전에 아쉽게 2-2로 비긴 한국은 스페인을 맞아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8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다. 무조건 모로코를 잡아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골만 터지면 승산이 있다. 한국은 역대 여자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단 한 차례

도 선제공격을 넣은 적이 없다. 상대가 먼저 골을 넣은 뒤 만회골을 터뜨렸다. 그렇게 기세를 올린 뒤 스페인전에선 대역전극을 쓰며 기적을 만들어냈다. 다득점을 위해선 해결사가 필요하다. 콜롬비아전에서 해외파 이금민(브라이턴)과 조소현(토트넘) 등이 상대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골키퍼에 막혔다. 피지컬을 겸비한 대담한 플레이어가 절실하다. 콜롬비아전 패배에도 희망은 봤다. 16세 26일로 콜롬비아전에 데뷔해 남녀 월드컵 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운 케이시 유진 페어(PDA·사진)의 활용이다. 어린 선수지만 양발을 사용하는 기술은 물론 상대를 앞두고도 저돌적으로 돌파하는 대담한 플레이가 탁월하다. 178cm 신장에서는

오는 파워 넘치는 기량은 후반 33분 교체 투입돼 짧았지만 인상 깊었다. 역대 월드컵에서도 당한 10대들이 결과를 바꿔놓았다.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브라질의 마르타는 17세 때 첫 출전한 2003년 미국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골을 기록하며 고국의 16강 진출을 도왔다. 콜롬비아의 린다 카세이도는 18세의 나이로 한국전에서 췌기골을 터뜨렸다. 벨 감독은 남은 경기에서 페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케이시는 한국 축구의 미래다. 우리에겐 체력을 갖춘 강하고 빠른 선수가 필요한데, 페어는 속도와 힘을 가지고 있다"며 선발 명단에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했다. 강은영기자

브라운, 5년간 3억400만 달러 NBA 역대 최고액 보스턴 계약



미국 프로 농구(NBA) 보스턴 셀틱스의 제일런 브라운(사진)이 5년 3억400만 달러(약 3,885억 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NBA 역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뛰어넘는 '슈퍼맥스 계약'이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26일(한국시간) 브라운이 같은 조건으로 보스턴과 연장 계약을 맺고 "지나해 니콜라 요키치가 덴버 너기츠와 맺은 2억 7,600만 달러(약 3,528억 원)를 넘는 리그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이라고 전했다. '썩팻'의 주인공 브라운은 보스턴에서 10시즌을 다투는 올스타다. 마이클 조던의 계보를 잇는 스윙맨형 슈팅가드로, 수중급 볼 핸들링과 넓은 수비범위를 겸비하고 있다. 2022-23시즌 보스턴에서 정규리그 67경기에 나와 평균 26.6점, 6.9리바운드, 3.5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49.1%, 3점 성공률 33.5%의 '캐리어하이' 성적을 기록했다. 2016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보스턴에 지명된 브라운은 계약 만료 직전인 2022-23시즌 올-NBA 세컨드 팀에 선정되며 슈퍼맥스 계약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셀틱스(연봉 총액 상한선)의 35%를 연봉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2023-24시즌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그는 새 계약에 따라 2024-25시즌 연봉 5,230만 달러(약 667억 원), 계약 마지막 해인 2028-29시즌에는 연봉 6,910만 달러(약 882억 원)를 받게 된다. 이는 2023-24시즌 연봉에 해당하는 3,180만 달러(약 405억 원)의 두 배 수준이다. 김수연인턴기자

## AT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 "모든 선수 출전 시간 보장"

"모든 선수들에게 충분한 출전시간을 제공하겠다." 구단 창단 후 첫 방한 경기에 나서는 디에고 시메오네(사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AT마드리드) 감독이 팀K리그(K리그 올스타)와의 맞대결에 양투양그리드만을 포함한 모든 선수들을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메오네 감독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많은 팬들이 공황에서부터 환대해줘 감사하다"며 "한국 축구팬들이 모든 선수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1903년 창단한 AT마드리드는 스페인 라리가 우승 11회, 코파 델 레이

오늘 팀K리그와 맞대결 "관심가질 만한 선수 있나 볼 것" 홍명보 "선수들 최소 45분 출전"



(국왕컵) 우승 10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 3회를 이룬

전통의 강팀이다. 지난 시즌에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정규리그 3위를 차지했다. AT마드리드에는 그리즈만을 비롯해 코케, 알바로 모라타, 세사르 아스필라쿠에타, 안 오블라크, 멘피스 데파이 등 세계적인 선수가 포진해 있다. 시메오네 감독이 모든 선수들의 출전을 공언한 만큼 경기장을 찾은 축구팬들은 최정에 멤버들의 플레이를 직접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시즌 종료 전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AT마드리드행 이적설이 돈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이강인은) 아찔한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한 뒤 "팀K리그와의 경기를 통해 관심을 가질만한 한

국선수가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시메오네 감독은 끝으로 "(올스타전과 같은) 친선 경기를 통해 클럽이 성장하고, 더 많은 서포터들이 AT마드리드를 응원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팀K리그와의 경기에) 당연히 좋은 템포로 임하고, 다음 시즌 리그 첫 경기에 도움 될 만한 경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는 팀K리그의 수장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은 "올스타전은 프로리그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이벤트이자 어린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경기"라며 "선수들의 컨디션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최소 45분씩은 출전해 무조건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대구FC의 세징야는 AT마드리드에서 기대되는 선수를 묻자 "높은 수준을 지닌 팀이라 한 명만 뽑기 어렵다"면서도 "굳이 꼽자면 그리즈만이다. 그리즈만 같은 선수를 가까이서 상대할 수 있다는 건 영광"이라고 밝혔다. AT마드리드는 27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맞대결을 마친 후 29일 같은 장소에서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두 번째 방한 경기를 펼친다. 박주희기자